

로드맵 없으니 외압 vs 외압설 책임져야

총무원·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토론회서 기존 입장 '재확인'

불교단체가 증정한 봉은사 직영 사찰 지정 토론회에서 조계종 총무원과 봉은사는 서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채 날선 대립을 계속했다. 하지만 정치권 외압에 관해서는 모두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봉은사는 "봉은사 직영 전환 관련 로드맵이 없는 등 총무원의 직영 전환은 정당하지 않다. 정치권 외압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총무원을 압박했다. 총무원은 "외압은 없었고, 봉은사 직영 전환 전 충분한 사전 준비·계획이 있었다. 직영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은 원로회의·중앙종회·교구본사주지협 등과 맞들려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사안에서 토론자간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명진 스님이 "발언권을 달라"고 종용하자 영답 스님이 "(명진 스님) 너무 많이 (발언) 했어요"라고 너스레를 떠는 등 두 스님이 서로 주고 받은 뼈 있는 농담은 청중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총무원 '봉은사 직영 전환 정당'

영답 스님은 "봉은사 사태와 관련해 종단 내부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심 끝에 토론회를 수용하게 됐다"며 "봉은사 직영 전환은 정책적 결정이지 보수와 진보, 개혁과 반개혁 문제가



4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토론회 모습. 명진 스님이 사회자 성태용 교수와 말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은 수도권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택한 이유는 강남의 대표 공찰이고 특정 문종도 없고, 지난날 성과 시스템이 검증된 곳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불교단체 '직영 실효성 따져야'

법안 스님은 "재산 사후귀속, 승가진흥기금 확보 등 현 집행부의 정책 취지는 좋다. 하지만 정책이 여론을 수렴해서 숙성해 나와야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지금의 집행부

는 일단 던져놓고 후속작업을 하는 경우가 잦다. 직영사찰 전환도 큰 그림은 이해하지만 세심한 점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수도권포교 거점도 많이라면 더 큰 그림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왜 봉은사 하나만 갖고 수도권포교를 말하느냐"고 반문했다.

#총무원 '직영 전환 준비해왔다'

박용규 총무처장은 "정치권 외압설로 봉은사 직영 전환 배경과 계획을 설명할 기회가 사전에 차단됐다. 봉은사 직영 전환은 수행+포교 전

략과제 등 과정서도 언급했던 문제이다. 현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응집된 결과물이 봉은사 직영 전환이다"라고 말했다.

#봉은사 '총무원 믿을 수 없어'

진화 스님은 "3월 4일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에서 영답 스님은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대신 도선사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해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9일 원

담 스님은 보도자료에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은 조계사-봉은사를 포교벨트로 수도권 주요거점사찰로 하겠다'고 말했다. 영답 스님은 한

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승가교육의 발족에 따른 기금 조달을 봉은사 직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영답·원담 스님이 번갈아가며 말 바꾸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말했다.

#총무원 '봉은사 로드맵 없다'

봉은사 측의 강공에 영답 스님은 봉은사 관련 로드맵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에 확실한 로드맵 갖고 하겠느냐? 큰 계획 갖고 하지"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봉은사 측이 만들어온 자료를 후미 주지가 그대로 이어서 한다면 그것이 비전 아니냐"고 반문해 봉은사 신도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봉은사 '외압이라 확산'

명진 스님은 "직영 전환의 정당성이 점차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압이라 확산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승·보선 스님을 만나도 뾰족한 답이 없어 고민해 보니 안상수 좌

파발언이 기억났다"며 "만약에 외압이 아니라면 프라자호텔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영국 거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외압을 숨기려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무원 '직영 전환과 외압 별개'

김영일 차장은 "직영사찰 전환을 철회한다고 외압이 없어지는가? 직

영사찰 전환 철회와 정치권 외압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인터넷에서 MB 장모와 자승 집사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답 스님은 "봉은사 직영 전환에 외압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다. 로드맵 없다고 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명진 스님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봉은사 '토론회 후 다시 폭로'

총무원 측이 "안상수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자 명진 스님은 "자승 스님과 안상수 대표와의 프라자호텔에서의 대화는 30%밖에 안나왔다. 나머지 이야기는 토론회 후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봉은사는 내가 지고 온 절도 지고 갈 절도 아니다. 신도의 간절한 원력과 내 원력이 합쳐 한국 불교에 변화를 주는 희망의 도량을 만들고 싶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단체 '운영방침 제도화'

윤남진 소장은 "주지를 잘 만나면 사찰 운영이 잘 되는 우연성에 기대해서는 안된다. 제과정치, 외부 입김으로 직영사찰 주지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소통 필요성 절실'

영답 스님은 "이번 토론회는 유익하고 좋은 자리였다. 오고간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 봉은사 직영 전환과 직영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중화가 의결한 봉은사 직영 전환을

총무원이 집행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봉은사 직영 전환 결정은 종단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결과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김영일 차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해 총무행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단체 '외압 죄시 못 해'

도법 스님은 "외압은 죄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무리 밖에서 외압한다 한들 불교계 내부가 그것을 견딜 힘을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명진 스님의 외압설 제기는 잘못된 것"이라며 "명진 스님이 종단 문제를 드러낸 것은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건강한 자기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는 "봉은사 사태는 불교계의 비극이다. 우리 토론 문화는 한쪽은 근거가 없다고 몰아가기 일쑤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날선 대립이 있었지만 종도의 뜻이라는 대원칙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도법 스님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총무원, 봉은사, 불교단체가 80% 해답을 만들어 냈다. 나머지 20%는 대중에게 남겨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두고 실속 없는 요식행위였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불교단체가 중립을 고집하면서 봉은사 사태의 장기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힘을 얻고 있다.

비록 명진 스님의 폭로 염포는 있었지만, 부처님오신날까지는 불교계에서 봉축 분위기를 저해하는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추비와 묵락

동국대가 또 시끄럽다. 이번에는 교직원에 의한 교수 평가 때문이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허남결)는 4월 23일 교수들에게 전달한 긴급 공지를 통해 "오영교 총장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3월 실시된 교원 인사평가에서 교직원 신분인 학사운영실장이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등을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평가에서 교직원은

東大 교수는 교직원이 평가?

교수의 학내 행사참여도, 무단결강 여부 등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만 참여해왔다. 더욱이 교수는 교직원의 인사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아왔다.

2년 전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가 온라인에 공개됐던 교수들로서는 자존심을 상하며 '발가벗겨'졌던 그 날을 떠올릴 만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오영교 총장 취임 이후 대학본부가 교수를 학교발전 저해사범으로 지목하고 마녀사냥 하듯 제도를 쏟아냈던 전력에 비

취할 때 교수들의 분노와 황망한 심정도 심분 이해가 간다.

동국대 교원인사기획팀 담당자는 "일선에서 교수들과 접촉이 잦은 학사운영실장 만큼 교수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물다"며 "교수들의 정서가 문제일 뿐 달리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시행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대학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학사운영실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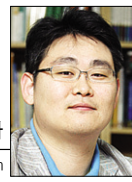
에는 평가를 주저하다 대학본부에서 독촉 받은 이도 있다. 마치 못해 모두 만점을 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객관성은 인사의 핵심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성원간 소통·화합이다.

오 총장은 동국대 인사평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가 이룬 성과가 이번 교직원의 교수 평가 파문으로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네티즌 반응

봉은사 토론회를 앞두고 인터넷 다음 카페 성태용 교수의 봉은사 화쟁토론회에는 토론회에 대한 네티즌의 기대와 바람이 올라왔다.

"화쟁의 의미 살려 토론회가 부처님 가르침 펼쳐지는 장이길 기원한다. 두루뭉실 아닌 파사현정 돼야"(ID: iii0913)

"총무원의 권력과 세속화, 승려의 총무원 간부, 동국대 이사결탁 등 민주적 사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해 주십시오"(ID: 능해)

"이번 기회에 전국 사찰 재정관리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향으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찰의 재정 투명화를 할 수 있는지요?"(ID: 정법화)

■ 토론회 말! 말! 말!

봉은사 직영사찰 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특히 봉은사 신도들은 점심을 버스에서 김밥으로 때우며 행사장을 찾았다. '독하게 먹고 왔다'는 한 봉은사 신도의 우스개에 정용기 재가연대 사무총장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토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이들은 공연장 밖 모니터를 통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패널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 축구 응원하듯 박수를 치거나 '울소~!'라며 두 손을 번쩍 들기도 했다.

한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한번 뜨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받아 적어 내려갔다. 기자의 사진기에 모

습이 담기자 매우 불쾌한 듯 "사진을 지워라"며 난색을 표하고 다시 토론에 집중하기도 했다.

봉은사 신도 최차부씨는 토론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입을 열지 못했다. 최차부씨는 "직영사찰 지정은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지적과 함께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분개했다.

강남 모 교회 목사는 "역사라는 것은 우익좌익이 같이 가는 것이지만 정치지도자가 스님에게 '좌파 주지가 강남 부자 집의 주지로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교가 이번 기회에 하나가 돼 무릎꿇고 사과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연 기자

能仁香堂
향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www.nihwa.com

자연만을 모은 순수한 향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향은 조계사 맞은편 직영매장과 통일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능인향당은 베트남의 호치민과 중부지방의 침향 연구실에서 침향을 전문적으로 수집,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향료회사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며 최고의 프리미엄급의 침향 선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등급체계를 그대로 공시,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능인향당에서는 일체의 조각이나 가공하지 않은 순수 침향괴만을 복장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나 1등급 침향 (Aquilaria crassna Pierre ex Lec)

능인향당은 순수원향의 범제기술을 보유한 초유의 회사입니다. 능인향당의 모든 향의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향료 및 유기농 재료만 직접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능인침향수 침향향정 침향 침향선향 침향선향선 침향선향관수 침향염주 상적 무진 세심 능인 미묵 선해 음관 능인침향 적정 라벤더 로즈마리